

인기가 뭐길래 🐼

"전 앞으로 3-5년 뒤면 은퇴할 겁니다.

만일 제가 여기적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늙어 팬들이 '성룡이 왜 저래'라고 실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브루스 리나 제임스 딘은 그 생애의 절정기에 죽음으로써 영원히 팬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죠.

이런 말해서 안됐지만, 그들의 요절은 참 잘 된 거예요.

저도 팬들의 뇌리에 강하고 굵은 인상으로 남고 싶어요."

홍콩의 액션스타 성룡이 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일찍 죽은 영화배우들이 참 잘됐다는 그의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유야 어떤든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클 잭슨은 이미 서른 살이 될 때부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추해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이는 것은 고통이다. 적당한 때 요절하는 것이 스타로서의 불멸성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해 왔다고 합니다.

어느때인가 그가 자신의 사인 아래 '1998'이라는 숫자를 즐겨 쓰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그가 만 40세가 되는 1998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지요.

인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과도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인기 스타들이 팬들의 성원이 식어짐을 느끼게 되면 쉽사리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실 인기 스타들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많은 인내와 자기 절제가 요구되는 세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기는 그들 삶의 본질적인 기반이요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가요 TOP10'의 인기 순위 변동에 따라 그들은 울고 웃으며, 팬들이 던지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의 강약에 그들은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기지상주의의 시계에서 사는 연예인들의 강박관념과 엄청난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삶의 전부인 그들에게 있어서 팬들의 외면은 곧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회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집 앨범 '내 눈물 모아'의 녹음을 마치고 자살한 서지원은 "안정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약을 복용해왔다.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험한 곳이고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

다.

아무썩 내가 죽은 후에라도 2집이 1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죽으면서 까지도 자신의 인기를 염려했던 서지원의 앳된 얼굴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김성재, 서지원, 김광석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인천의 한 중3 여학생은 화장실 벽걸이에 전깃줄로 목을 매단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스타모방심리가 빛은 또 하나의 비극이지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들.

그들 자신의 말대로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 인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마약에 빠지는 것과 같은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죽음에 덩달아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거품 같은 인기에 자신들의 삶을 건 연예인들의 모습도 불쌍하려니와 그런 연예인들을 따라 생명까지도 던지겠다고 하는 청소년 팬들의 모습은 얼마나 가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6-17)

손종태/예수촌교회 설교 사역자, 기독교 문화 사역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